

공동체 소식



주님 공현 대축일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뵈옵게 하소서.

1월 기도지향

- + 우리 본당 공동체
- + 본당 공동체의 각 가정

■ 지난 한 해 동안 ‘본당 운영’을 위하여 애써주신,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운영을 위하여 꾸준히 희생하고 있는 ‘평협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본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은 ‘1월의 첫주일’로서 ‘자비의 특별 희년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1/3 (주일) 3:00 - P.M.

■ 캔사스 대교구 내 이민자 미사

- 일시 : 1/17(주일) 오전 11:00

■ 복사단 겨울 행사

- 일시: 1/3 (주일) 교중미사 후.

■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1/16(토) 오전11:30.

■ 본당 달력 배부에 대하여

- 내용: 본당 달력은 각 가정에 한 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주까지 남은 달력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가정에서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정기도 신청에 대하여

- 내용: 가정기도를 원하시는 가정은 전례부를 통하여 ‘가정기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기도의 지향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욱더 훌륭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 전례꽃 봉헌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 김경돌, 김대연, 김말자, 김인자, 김정자, 문석찬, 박옥희, 박혜숙, 이성현, 이영민, 이우영, 정석원, 정연숙, 정지현, 조지현, 한순례, 한춘희.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487	220	180	100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이원준 요한	안광민 야고보
	정채린 소피아	문호진 안토니오
다음주일	문호진 안토니오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민서 임마누엘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차호섭 요셉 최선운 마리아
차주	최은미 아네스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주	안현숙, 김화년, 정명숙

헌금 봉사자

금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27	72명	289불	530불
현교정, 박동희, 이내익, 고영방, 정연숙. (총 5세대) *특별헌금: 800불(본당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공현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6년 1월 3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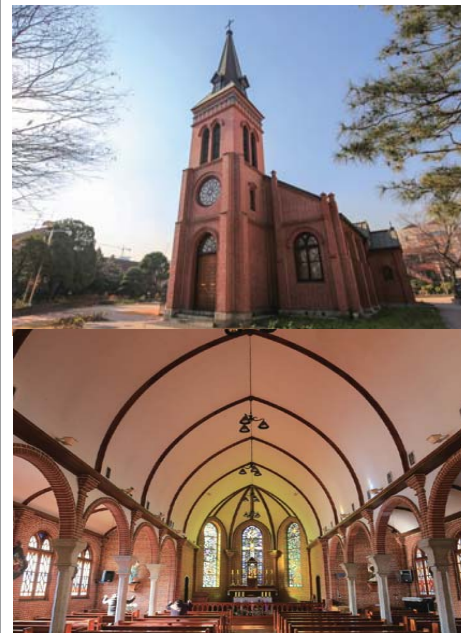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드러나십니다. 모든 이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동방의 박사들처럼 열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사진 설명

중림동 약현성당

중림동 약현성당은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벽돌조 서양식 교회 건축물입니다. 이 곳에 약초가 많다는 뜻의 이름으로 수많은 순교자의 처형지였던 ‘서소문밖 네거리 순교지’를 옆두에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명동성당의 축소판인 약현성당은 명동성당을 설계한 코스트 신부의 설계로 1892년 완공되었으며, 1896년 한국 최초로 사제서품식이 거행된 곳입니다. 또한 고딕풍의 건축양식으로, 한국 교회 건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0,1-6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화답송 : 
주님 -,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3,2,3-5-6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2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쉐 마 세상 만방에 드러난 구세주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임금으로 공적으로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였음을 기념하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들의 이름은 멜키울, 발타살, 가스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유명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기원후 1604년 목성, 토성, 화성 사이에 매우 특별한 배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배열은 80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특이 현상으로 기원후 799년과 기원전 6년에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원전 6년에 탄생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마태오 복음에서 무수한 아이를 죽였던 헤로데가 기원전 4년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전과 후를 나누는 오늘날 연대 계산법은 중세 시대 이후에나 시작된 계산법으로 이를 처음 계산할 때 다소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케플러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이 본 별은 목성, 토성, 화성의 특이한 배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행성은 점성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목성은 임금을 상징하고, 화성은 전사를 상징하며, 토성은 스승,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이 세 행성이 12궁도 가운데 물고기 자리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고기자리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땅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땅의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이를 보면서 서방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 땅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전사인 한 임금, 권위를 지닌 스승이 태어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임금과 친분을 맺기 위해 세 가지 선물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야기는 실제 있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우리에게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이 세상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져온 선물 역시 상징적인 의미들을 지니는 것들입니다.

먼저, 황금은 임금에게 드리는 선물로써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 때 드리는 향으로써 예수님만이 참으로 높으신 사제라는 것을 드러내고,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약인데 바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만이 참된 임금이요 구세주이심이 세상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는 이유입니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았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음을 알아보았던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반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아 나서지 않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면서,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요 임금이심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때 비로소 오늘도 예수님이 참된 임금이심이 세상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되새겨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우리 신앙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어느 날 나자렛이란 작은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천사를 보자 당황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천사는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는 등 아주 다양한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갑자기 등장한 천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26-38

겁에 벌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고 곧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약혼했지만 여전히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천사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며 딱 자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작명까지 해주고 사라집니다. 마리아는 며칠간 잠 못 이루며 시름에 빠졌지만, 결국 모든 일을 하느님께 의지합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39-56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는 건 인간적으로 죽음의 삶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과연 그녀의 말을 믿을까요? 특히 약혼자 요셉은 무척 괴롭고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혼하

기로 마음먹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이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1,18-25

요즘에도 중동지역에서 여성의 인권은 많은 침해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모 마리아는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무척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은 아들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를 마리아를 믿는 ‘마리아교’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성모님이 교회의 으뜸 성인으로 존경받고 있는 이유는, 그분의 굳은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본보기인 거죠. 살면서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때가 언제 있었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가치 있는 일

주인님이 그랬어요.
쉬운 일만 찾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고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날 때
그렇게 제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태 2,2)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